

2014년 서울시 7급 B형 문제 해설

제공 : 유두선 교수

1. ① 예민(銳敏) ② 사칭(詐稱) ③ 귀감(龜鑑) ⑤ 답습(踏襲)

정답 ④

2. ① 잠그어 -> 잠가 ② 삼가해 -> 삼가 ④ 후레쉬 -> 플래시 ⑤ 알콜 -> 알코올

정답 ③

3. 악비나다 ->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싫증이 나다.

정답 ①

4. ① 나오는 대로 ② 처음부터 ③ 사이이기에 ④ 펼 것입니다.

정답 ⑤

5. ① 14째 줄 ③ 8째 줄 ④ 둘째 단락의 둘째 줄 ⑤ 첫째 줄

정답 ②

6. ①, ②, ③, ⑤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품사는 동사 ④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파생 명사로 품사는 명사이다.

정답 ④

7. 국문정리는 이봉은이 지은 문법서이다.

정답 ②

8. 훈민정음 창제 시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. '독립신문' 창간호에서 제일 먼저 띄어쓰기를 시도했다.

정답 ⑤

9. ① 욱속부달 :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

② 절치부심 :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

③ 우공이산 :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

④ 부화뇌동 : 좇대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

⑤ 마부작침 : 끊임없이 노력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

정답 ⑤

10. ① 가름하다 -> 갈음하다

② 일체 -> 일절

④ 햇빛 -> 햇벌

⑤ 가능한 -> 가능한 한

정답 ③

11. 주어진 글은 호수의 거울같이 평정한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.

- ① 무상감 ② 경로사상 ③ 봄밤의 정한 ④ 마음의 평정 ⑤ 임에 대한 열정

정답 ③

12. ①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.(역점)

②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.(순접)

③ 군자는 물로 거울을 삼지 않고 타인을 거울로 삼는다.(순접)

④ 선비는 글로 법을 어지럽히고 험객은 무로써 금기를 범한다.(순접)

⑤ 군자는 두루 마음 쓰고 편당을 짓지 아니하며 소인은 편당을 짓고 두루 마음 쓰지 않는다.(순접)

정답 ①

13. 간장 담그는 세시 풍속을 노래하고 있다. 나물캐고 떨어지는 꽃임을 쓰는 것은 3월이 가장 적당하다.

정답 ②

14. ① 뻥 -> 백 ② 숲 -> 습 ④ 쥬스 -> 주스 ⑤ 화일 -> 파일

정답 ③

15. ‘풍요’는 4구체 향가로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.

정답 ③

16. ① 구개음화 ② 비음화 ③ 유음화 ④ 비음화 ⑤ 된소리되기

①~④는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.

정답 ⑤

17. ① (친구가) 길을 가는

② (사람들이)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

③ (가족들이) 고향에 살고 있는

⑤ (물건이) 여기서 팔리는

①, ②, ③, ⑤는 성분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고 ④는 동격의 관형절이다.

정답 ④

18. ㉠과 ㉡은 같은 의미로 연관성이 있다.

㉢은 그의 집은 그 사람의 원수에게 팔렸다.

㉣은 영화는 처녀이다.

㉤ ‘나’가 남자일 때 맞는 말이다.

정답 ①

19. ‘몽리자’는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덕을 보는 사람을 뜻한다.

② 은비 ③ 해태 ④ 구거 ⑤ 위기

정답 ①

20. ①-(1) ③-(6) ④-(9) ⑤-(10)

②는 (5)에서 단어의 경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.

정답 ②

2014년 서울시 7급 국어 총평

독해 2문항, 문학과 국문학사 3문항, 쓰기 1문항, 어휘 2문항, 한자 3문항, 문법 9문항이 출제되었다. 작년에 비해 쉽게 출제된 편이다. 언어학사가 출제 된 것이 특히 사항이고 명사형과 파생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되었다. 문장의 의미 관계를 문제와 쓰기 문제가 참신한 편이다. 한문 문장이 출제 되어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.